“참회·하심·용서하라…세상 밝아진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국회 정각회 정기법회 법문
‘삼세 인과법’ 주제로 설해
“낮아져야 하화중생 가능”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2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봉행된 국회 정각회 · 직원불자회 7월 정기법회에서 ‘삼세 인과법’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미래에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현생에서 전생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착한 마음을 갖고 모든 걸 용서해야 합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2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봉행된 국회 정각회·직원불자회 7월 정기법회에서 ‘삼세 인과법’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이날 상진 스님은 ‘참회·하심·용서’를 강조했다. 〈천수경〉의 참회게 ‘아석소조제악업 개유무시탐진치 종신구의지소생 일체아금개참회(我昔所造諸惡業 皆由無始貪瞋癡 從身口意之所生 一切我今皆懺悔)’를 상기한 상진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라는 의문을 갖는데 이는 과거의 업을 모른 채 현재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선악의 업은 반복되는 윤회 속에서 쌓여온 것이므로, 당장의 결과만을 보고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 자리의 국회의원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을 유지하려면 계속 복을 지어야 한다. 복을 까먹는다면 싸움과 갈등만 남게 된다”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악업과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회해야 한다. 현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하심과 용서도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우리는 전생의 빚으로 인해 현생에서 고통받는다. 그러므로 억울해하지 말고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을 갚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내려놓는 하심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하심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진 스님은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을 강조하며 부단한 실천을 당부했다. 스님은 “보시는 베푸는 마음이며, 지계는 선을 지키는 사는 것이며, 인욕은 괴로워도 참는 것”이라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면 정진해야 하고 선한 마음의 유지는 선정을 통해 이뤄진다. 지혜는 모든 것을 통찰하는 근본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바라밀 수행은 우리를 보배로운 삶으로 이끌어준다.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했다.

상진 스님은 법문 말미, 국회의원들에게 ‘하화중생(下化衆生)’을 당부했다. 스님은 “내가 낮추지 않으면 나를 보고 낮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스를 낮춰 하화중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항상 하심하며 연민과 자비로 국민을 대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이헌승 회장을 비롯해 김형동·김영배·서범수·임오경·이수진·손솔·문대림·김동아·이강일 의원과 천우정 국회직원불교신도회장 및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청사 복구 기금 이어져…“종단 안정 찾길”

신흥사 본말사 1억원 전달
계단위원회도 4000만원

조계종 총무원 청사인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이 화재로 긴급 보수에 들어간 가운데, 조속한 복구를 염원하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

신흥사 본말사 스님들은 7월 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감사의 뜻을 전한 진우 스님은 “신흥사 문도들이 합심해 안정되게 교구를 이끌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종단 불사로 종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다. 앞으로 종단에서 본말사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회의원 삼조 스님은 “신흥사 5개 문도가 모두 복구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총무원장 스님이 리더십으로 복구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태허 무관 대종사)는 7월 3일 진우 스님에게 복구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무관 대종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복구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 호압사 주지 현민 스님도 복구기금 1800만원을 전달하며 종단 안정을 기원했다. 서울 도안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은 동광 스님, 광복 스님과 함께 2000만원을 전하며 조속한 복구를 염원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도 같은 날 3000만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마곡사, 주지 후보자 선출 산중총회

7월 17일 오후 1시 관음전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7월 17일 열린다.

제6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자암 스님)는 7월 17일 오후 1시 마곡사 관음전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6월 24일 밝혔다.

후보자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말사 주지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승가교육기관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산중총회 구성원은 해당 교구 재적승 가운데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교구본사에서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 종무원 △교구본사에서 걸쳐 두 차례 이상 성지 참배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본사에서 8회 이상 결제 이력이 필요하다. ‘산중총회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종지협, 중앙아시아 순례…“이웃종교 이해 시간”

6월 24일~7월 1일, 성지순례
세계 종교 지도자 만나 교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5개 종단 대표들이 6월 24일~7월 1일 6박 8일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 현지 종교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이웃종교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성지순례에는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5개 종단 대표가 참여했다.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과 종지협 운영위원장인 진경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도 함께했다.



키르기스스탄 이맘 사라시 모스크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종교지도자들. 사진제공=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순례단들은 첫 일정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고려인 최초 정착지 우슈도베 마을을 찾았다. 마을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 17만여 명이 처음 발을 디딘 장소다. 순례단은 고려인역사박물관을 방문해 헬렌 박 선교사의 안내로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전해 들었다.

순례단은 6월 27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판필로프 공원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젠코프 대성당을 찾아 사제들에게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28일에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종교청을 방문, 미딘 울루 카나트 부청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를 마친 순례단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스크 중 하나인 ‘이맘 사라시 모스크’를 방문했다. 6월 30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종교위원회를 방문, 종교 평화와 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마친 종지협 지도자들은 자은사를 찾아 조주 스님을 비롯한 현지 신도들과 반가운 해후 시간을 가졌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각종 ‘제22회 회당문화축제’ 연다

7월 21~23일 울릉도서 개최
도보순례 · 독도콘서트 등

울릉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진각종의 ‘회당문화축제’가 올해도 찾아왔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탄생성지가 있는 울릉도 일원에서 제22회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회당문화축제, 청년문화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7월 21일 오후 7시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지역 어린이·가족 특별초청공연 그림자극 ‘늙은 개’를 시작으로, 7월 23일 도보순례 ‘회당의 발걸음을 따라’와 독도특별방문, 메인행사인 독도아리랑 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울릉도 도보순례 ‘회당의 발걸음을 따라’는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여래심인당(주교 법선 정사)을 출발해 총지심인당(주교 경일 정사)까지 8.1km를 걷는다. 참가자에게는 심인당순례 인증수첩과 기념품 등이 전달될 예정이다.

주민과 관광객 등 2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울릉도 꿈나무어린이집 원아들과 울릉도를 시와 음악으로 노래하는 울릉애가 프로젝트2 등 지역 게스트를 비롯해 육중완밴드, 안치환, 무용가 이나희 및 장단랩스, 위덕대학교 태권도 퍼포먼스팀 등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초청 내빈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을 초청해 추진하고 있는 독도특별방문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으로 마련됐다. 신중일 기자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